

시인의 마을

기다림

기다림은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기다림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기다림은 아무렇지 않게 무심결에 다가온다
기다림은 마른침을 꿀꺽꿀꺽 삼키게 한다
기다림은 불확실한 초조함에 소소한 울줄기가 된다
기다림은 살그머니 손잡아 주는 무심한 공허함이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출발부터 다소 허무함이었는지 모른다
기다림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먼 길을 걸어지고 가야 할 명이다
기다림은 곁에 두어야 할 그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무엇이다
기다림은 갈등도 마른 침도 아니다
기다림에 너무 깊이 몰입할 이유가 없다
기다림의 척도는 시간이다
기다림은 기다림에 대한 예의이다
기다림은 하나의 선택 게임이다
기다림은 것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범함이다

기다림은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박여범 시인 '기다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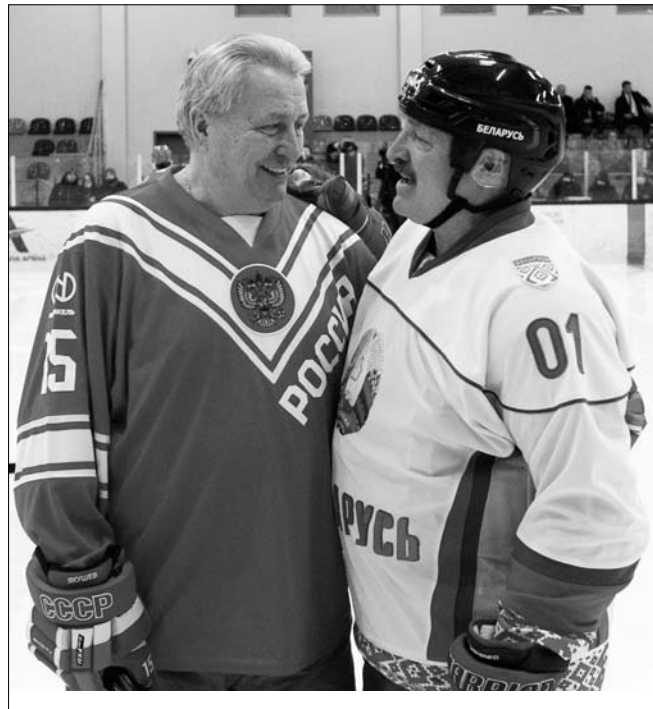
시표를 뒤다

어린 시절, 30분에 한 번 다음 정류장에 버스가 오고 갔다. 어쩌면, 나에게 '기다림'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는지 크다.

신작로(新作路)라 일컫는 비포장 도로에는 하루에 몇 번 자그마한 차가 지나가는 정도였다. 그럴 때면, 신작로는 거대한 건지구를 즐긴다. 비제면지, 초미제면지가 이보다 지독했으랴.
갈어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 땀던 먼지 속을 치열히 숨 고르기로 참아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버스 간이정류장은 이런저런 사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당량이다.
그 사당량의 윤곽이 가려져지는 것은 추운 날씨 탓만이 아닐 것이다. 12월의 끝자락이다.
봉어행을 담은 교포와 친구가 손에 꼽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겸남이가 기다림의 중심에 있다. 보고 싶다. 경남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오늘도 기다림으로 하루가 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전 러시아 아이스하키 스타와 얘기하는 루카셴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오른쪽) 벨라루스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톨레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팀이 돼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면서 상대 팀으로 출전한 러시아의 전 아이스하키 스타 비체슬라프 페티소프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과의 회담 후 내년 초 공동으로 '워 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서 언론탄압 시위하는 홍콩 시위대



30일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중국은행 앞에서 홍콩에서 온 시위대의 현지 지지자들이 '홍콩 해방'과 '홍콩 언론자유 지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홍콩 경찰은 29일 '선동 출판물 출판 공포' 혐의로 민주진영의 '입장신문'(Stand News) 간부들을 체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반중 일간지 빈피일보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을 닫은 데 이어 '입장신문'도 폐간됐다.

사설

생거부안 공연시낭송

'생거부안, 공연시낭송으로 열다' 행사가 가 지난 4일 부안에 슬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여원공연시낭송회가 주관했다. 부안여원공연시낭송회는 사단법인 여원공연시낭송회예술원유미숙 원장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회원들이 그동안 수업을 통해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무대에 올려진 시는 신남춘 '강에게', 김기찬 '깨꽃', 기세원 '내편산 겨울나무', 배귀선 '어머니께 지구별에서', 김홍관 '해 저물어 온다 해도', 신대철 '부안, 그곳에 가면' 등이다.
연출을 맡은 유미숙 교수는 "부안의 문인들이 쓴 감성 충만한 글의 형상화를 이미지로 풀어 세계화의 도시 부안이 감성 문화 힐링 도시임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은 낯선 의미가 있다. 영조대왕이 어사 박문수를 불러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

자"사람이 살기에는 부안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된다.
부안에는 문인과 예인들이 많다. 이화우(梨花雨) 흉남립 재 울며 잡고 이별한 남 /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이는 부안 출신 이매창(李梅窓, 1573 ~ 1610)의 시다.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로 잘 알려진 신석정(辛夕汀, 1907 ~ 1974) 시인의 '문학관'도 부안에 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움츠리게 하는 상황이다.
부안 문인들의 글을 공연시낭송으로 연출해 무대 공연으로 펼친 것은 의미가 크다. 감성적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기주의 보다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참가자들은 부안 사랑을 시로 표현했다. 공연시낭송을 보면서 그리움과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심각한 실손보험 적자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심각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계속 올려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단체계약 포함)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1997~2001년 일본에서는 고이올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실손보험의 막대한 적자 원인 중 하나는 통계 불능에 빠진 비급여 진료비가 꼽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적용, 가격, 빈도 등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경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인상률은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를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